

초기 하와이 한인 천주교인의 실체와 활동 (1903-1929)

김성태*

1. 머리말
2. 초기 이민과 천주교 신자의 실체
3. 한인 천주교 신자들의 활동
4. 맺음말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하와이 초기 이민 신자들의 실체와 그들의 활동을 규명하고자 한다. 경향잡지, 서울교구연보, 하와이 지역의 세례대장에서 언급된 이름과 기존에 밝혀진 이민자 명단을 대조하여 초기 입국자 가운데 천주교 관련 인물들을 잠정 지목하였다. 이들은 가난한 처지와 언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지의 가톨릭 성직자를 찾아가 신앙생활을 이어가려고 노력하였다. 그 활동을 요약하면 첫째, 한국천주교회에서 발행한 『경향잡지』를 정기적으로 구독하며 천주교 교리와 공지사향을 숙지했고, 고국 교회의 소식을 접하여 연대하고자 했다. 둘째, 경성의 영해원에 매년 단체로 기부금을 보내며 애금을 실천하였고, 교리를 공부와 전교를 실행한 결과 새로운 입교자를 배출하기도 하였다. 셋째 고해준비와

* 내포교회사연구소 소장

주일 파공, 대소재의 준수 등 고국에서 행하던 신앙생활을 서로 독려하였으며, 특히 장례 때에는 조선 신자들이 모여 연도를 바쳤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경성대목구에서는 이민 이래 처음으로 1923년 라리보 신부를 파견하여 하와이 공동체를 방문하게 하였다. 하와이 한인 신자들의 이러한 성과는 한국천주교회를 하와이 지역에 알린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하와이 천주교 이민, 라리보 신부, 하와이 한국천주교 디아스포라

1. 머리말

1903년 1월 13일을 시작으로 1905년까지 7천 2백여 명의 한인이 하와이에 입도하였다. 한국 역사상 첫 공식 해외 이민이었다. 이후 하와이 이민은 오늘날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미주 지역 이민 사회의 초석이 되었다. 초기 하와이 이민은 선교사이자 주한 미국 공사였던 알렌의 주선으로 정부에 설치된 유민원(綏民院)과 동서개발회사가 주관하였지만, 국내에서 활동하던 미감리교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사되었다. 단순한 홍보나 독려를 넘어서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민선을 함께 타고 하와이로 건너갔고, 이들에 의해 하와이 한인 개신교회가 시작되었다.¹⁾ 잘 훈련된 교회의 지도자와 많은 교인들이 이민에 참여하면서, 국내에서는 서부지역 감리교회 교단에 적잖은 부담을 안기기도 하였다. 반면에 하와이에서는 한인 개신교회가 단시일에 탄탄하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비한다면 초기 하와이의 한인 천주교는 개인의 신앙생활 면에서나 공동체 조직을 위한 조건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민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개신교와 달리 한국천주교회 당국은 신자들의 이민을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신부들의 만류로 인해 이주를 택한 천주교 신자는 소수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러잖아도 수효가 적은 신자들은 하와이 군도의 넓은 지역에 산재한 농장에 분산되어 고립을 면치 못했다. 그들은 모국 천주교회의 도움 없이 현지에서 자발적으로 신앙 활동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일부 신자들은 현지의 사제를 찾아 성사를 배령하기도 하였으며, 비록 불완전하기는 하나 공동체를 형성하고 고국에서 익힌 신앙생활을 구현하며 한국교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초기 이민 신자들의 이러한 노력은 자발적으로 교회를 설립했던 한국천주교회 창설기를 연상시킬 만큼 인상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들의 존재가 알려지거나 언급된 바 없었다.

1) 이만열, 「하와이 이민과 한국교회」, 『한국기독교와 역사』 9, 2002, 11쪽.

그러므로 이 글의 목적은 하와이 초기 이민자들 가운데 존재했던 천주교 신자들의 실체를 밝히려는 데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개신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하와이 이민은 교회사의 영역에서 자주 논의된 적이 있고, 독립운동사나 이른바 한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학술적 관심 역시 개신교회 자료를 기반으로 고찰되었다.²⁾ 하와이 이민에 관한 연구 성과들의 가치를 높이 살수록 다양한 구성원의 존재와 그들의 역할에도 주목해야 한다. 비록 소수의 공동체와 단체라 하더라도 동시대 이민자로서 한 몫을 분명히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하나하나가 올바르게 이해될 때 하와이 이민의 노고가 비로소 정당하게 평가될 것이다.

하지만 초기 하와이 한인 천주교 관련 연구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자료의 한계이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하와이에서 유일한 한인 천주교회인 성 김대건 성당에서 그 물꼬를 터주었다. 성당에서는 한국천주교회가 하와이 한인 공동체에 사제를 지속적으로 파견하기 시작한 1974년을 한인 성당 설립의 해로 보고, 창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50년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편찬위원회는 전문 연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자료를 발굴·수집하였다. 하와이 지역을 관할하는 호놀룰루 교구의 소장 자료를 직접 검색하는 한편 천주교 묘지들을 찾아 한인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고, 지역 신문의 기사들도 모아 주었다. 한국에서는 내포교회사 연구소에서 『경향잡지』와 성직자들의 서한 및 보고서에서 하와이 관련 기사를 수집할 수 있었다. 파리외방전교회와 미국 메리놀 외방선교회에서도

2) 한국인의 하와이 초기 이민과 관련하여 최창희, 「한국인의 하와이 이민」, 『국사관논총』 9, 1989를 참조했다. 이민 입국자들의 명단은 Duk Hee Lee, *Korean Passengers Arriving at Honolulu, 1903-1905*, University of Hawaii, 2004에 잘 정리되어 있어, 명단 대조를 통한 실제 연구에 도움이 되었다. 조은정·송병건, 「20세기 초 하와이 한국인 이민의 요인과 이민자의 특성」, 『경제사학』 51, 2011./개신교의 활동에 관해서는 이만열, 「하와이 이민과 한국 교회」, 『한국기독교와 역사』 9, 2002; 이덕희, 「하와이 한인감리교회의 초기 교인들」, 『한국기독교와 역사』 19, 2003; 이덕희, 「하와이의 한인 성공회 교회」, 『한국기독교와 역사』 38, 2013.

일부 자료를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초기 하와이 한인 천주교인의 실체와 활동을 일정하게나마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시간적 범위는 하와이 이민이 시작된 1903년부터 1929년까지로 제한하였다. 1930년대 이후로는 메리놀회 사제들이 본격적으로 한인 공동체를 맡아 사목하였고, 하와이 한인 천주교 공동체가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므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하와이 초기 이민 천주교 신자들의 실체와 활동을 밝히려는 필자의 의도는 시론적 단계에 머물렀으나, 그동안 관심이 미치지 못했던 주제에 대한 첫 시도라는 데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메리놀회와 한인 천주교 공동체와의 관계가 밝혀지고, 하와이 한인사회에서 한인 천주교회의 위치와 역할이 드러나서 첫 이민 신자들의 노고가 정당하게 기억되기를 기대한다.

2. 초기 이민과 천주교 신자의 실체

1) 이민의 배경

19세기 후반, 자연재해와 사회경제적 이유로 한반도 주민의 일부가 새로운 생계 여건을 찾아 만주와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었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의 역사·문화적 접촉을 통해 익숙하게 여겨졌고, 이주에 대한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신자들 역시 이주 대열에 합류하면서 한국천주교회가 창설된 이래 처음으로 한반도 외 지역에 새로운 한인 천주교 공동체가 생겨나기도 하였다.³⁾ 신자들의 집단적 이주가 천주교회의 확장이라

3) 「1900년 3월 27일자」, 「1903년 5월 23일자」, 「1904년 2월 4일자」 브레 신부 서한 : 『함경도 선교사 서한집』I, 함경도천주교회사간행사업회, 1995.

는 측면에서 고무적인 현상이면서도 국외로 빠져나간 신자들로 인해 교세가 감소하는 곳이 늘어났고, 사제가 없는 지역에서는 신자들이 수계생활을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한인들의 이주 영역이 하와이까지 확대되었다. 하와이는 거리도 멀거니와 상호간 교류도 거의 없던 곳이었다. 이민의 성격도 이전과 전혀 달랐다. 한반도 주변 이주는 무주지에 대한 농지의 개간이나 익숙한 벼농사 기술을 활용하였던 반면 하와이는 농장에서 일할 임금 노동자의 이민이 대부분이었다. 이민자들은 새로운 이민지에 대한 사전 지식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고, 주요 생산 품목을 차지하는 사탕수수나 파인애플과 같은 농작물 경작에 대해 아무런 경험이나 기술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하와이는 대규모의 사탕수수 농장에 투입될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다. 농장주들은 값싼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하여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협회’(Hawaiian Sugar Planters Association)를 조직하는 한편 중국, 일본, 포르투갈 등으로부터 자신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줄 노동자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노동자들의 비중이 특정 국가나 민족에게 편중되는 것을 막고, 집단 간에 상호 견제를 통해 노동자를 손쉽게 다루고자 했다. 한편 1898년 미국에 병합된 하와이는 1900년 유기법(Organic Act)이 통과되면서 이주 노동과 관련하여 본토의 규정이 적용되었다. 하지만 1882년 발효된 중국인배제법(Cinese Exclusion Act)이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므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중국인 이주가 점차 제한되는 추세였다.⁴⁾ 이에 따라 대거 대체된 일본인 노동자들은 잦은 파업과 현장 이탈로

4) 1890년 이후 포르투갈과 중국 이민자가 점차 줄어들고, 일본인 이민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THIRTEENTH CENSUS OF THE UNITED STATES TAKEN IN THE YEAR 1910 - STATISTICS FOR HAWAII,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13, pp.18-19; 이민단의 상세한 구성에 관해서는 홍윤정, 「하와이 이민과 이민단의 구성(1903-1905)」, 『역사학논총』 5, 2004.

농장주들에게 불안을 가중시켰다. 난관에 봉착한 농장주들은 또 다른 해결 방안으로 한국인 노동자의 도입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⁵⁾

한편 주한미국공사 알렌(Horace N. Allen)은 고종과의 친분을 앞세워 한국인의 하와이 이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정부에서는 유민원(緩民院)을 설치하여 노동자의 해외 진출을 공식화하였다. 그리고 노동자 모집과 운송 같은 이민 실무는 동서개발회사(東西開發會社)가 맡도록 했다.⁶⁾ 그 결과 대한제국에서 발행한 여권(執照)을 가진 첫 이민자들이 1902년 12월 22일 제물포를 출발하였다. 1905년 7월 초까지 약 7,226명의 한국인이 하와이로 건너갔다.⁷⁾

2) 하와이 이민에 대한 한국천주교회의 시각

신자들의 하와이 이민에 대해 천주교 조선대목구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만주 지역에서는 새 공소를 설립하거나 이주자들을 사목적으로 돌보기 위하여 한국에서 활동하던 사제가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이른바 교세 확장의 측면에서도 긍정적 요소가 있었다. 그러나 하와이 이민은 신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하와이 현지의 선교사들로부터 일정한 정보들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의 상황은 부러워할 것이 못 되며, 이주자들은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포되고 있는 공고문이 있는데(이미 한국 신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이 공고문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와이 제도는 이곳으로 오려는 사람

5) 최창희, 「한국인의 하와이 이민」, 『국사관논총』 9, 1989, 132-133쪽.

6) 이민자 모집을 위한 광고, 「고시」(1903년 8월 6일자)에는 기후가 온화하여 심한 더위나 추위가 없고, 모든 섬에 학교가 있어 무료로 영문을 가르치고, 월급은 미화 15원(한국 돈 57원 가량)에 노동시간은 매일 10시간, 일요일은 휴식, 숙소와 나무와 식수 그리고 치료 경비는 고용주가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7) 최창희, 「한국인의 하와이 이민」, 195쪽.

들에게 아무런 이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곳에 오는 것은 농장주를 부유하게 하고, 자신은 점점 더 가난해지게 하는 일이다”라고 해야 합니다.⁸⁾

이민 모집자인 동서개발회사는 이민 모집 광고를 통해 이민지 하와이의 온화한 기후환경과 좋은 생활조건을 소개하며, 무상 서비스와 높은 임금을 홍보했다. 하지만 국내 선교사들이 파악한 상황과는 차이가 있었다. 선교사들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경제적인 실익이 크지 않으며, 오히려 일부 농장주들의 태도는 노동 착취에 가깝다고 혹평했다. 포르투갈 이민자의 사례는 장차 한인 이민이 겪게 될 현실일 것으로 보았다.

25년 동안 이곳에 있는 포르투갈인 가정은 한 달에 18~20달러를 벌었다. 그들은 보통 5~6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거기서는 밀가루 한 포대에 \$150, 쌀 한 포대에 \$3~\$4입니다. 거기에 옷 등의 비용을 추가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그들이 큰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⁹⁾

한인들에게 약속된 임금은 포르투갈인들보다 조건이 좋지 않았을뿐더러 물가도 너무 높았다. 숙소나 의료, 식수 등 제공된 편의도 상태가 좋지 않았다. 농장주가 제공한 편의 중에는 약속과 달리 무료가 아니거나, 노동 시간의 추가적 연장으로 모든 비용을 우회적으로 회수해가는 경우도 있었다.¹⁰⁾

8) Corée —Les Coréens aux îles Hawaï.— La condition des Coréens n'est pas à envier, les émigrés sont trompés. Il y a une notice qui court en Corée, (elle a déjà été publiée dans les Journaux Coréens), or cette notice est fautive. Les îles Hawaï n'offrent, pas du tout d'avantages à ceux qui désirent venir ici, on devrait renverser la phrase et dire : « Venir ici est très favorable pour enrichir les planteurs et pour se rendre de plus en plus pauvre soi-même »: <ANNALES> JANVIER FÉVRIER 1906. — N° 49.

9) <ANNALES> JANVIER FÉVRIER 1906. — N° 49.

10) <ANNALES> JANVIER FÉVRIER 1906. — N° 49.

경제적인 문제에 더해 천주교회가 가장 우려했던 것은 신앙의 상실 위험과 자녀들의 교육 문제였다. 조선대목구에서는 가능한 본당과 공소에 교리 학교를 설치하여 신앙교육은 물론 일반교육까지 실시했다. 그리고 이들 학교에서 활동할 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사범학교와 고등 교육기관의 신설을 도모하였다.¹¹⁾ 그런데 하와이에서는 신앙교육에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공립학교는 잘 지어졌지만, 그곳에 다니는 가톨릭 신자들은 그나마 가지고 있던 적은 신앙도 잃게 되며, 그 학교에 고용된 대부분의 교사들(남자 교사는 거의 없음)이 하는 가장 큰 일은 월말에 월급을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즉, 결과는 미미하다는 뜻입니다. 이 초등학교를 8년 동안 다닌 대부분의 학생들은 영어로 제대로 된 문장을 쓰는 것도 어려워합니다.¹²⁾

형편이 어려운 노동자 자녀 대부분은 사립학교 대신에 공립학교에 보내졌다. 가톨릭계 사립학교에서는 적절한 신앙교육과 함께 세례와 미사 같은 정기적인 전례생활과 사목적 서비스가 가능했고, 학생들을 통해 부모의 입교까지 이루어졌다. 하지만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사립학교와 달리 공립학교에서는 높은 수준의 교육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선교사들은 그 원인으로 일부 교사들의 낮은 자질과 열의 부족을 꼽았다. 열의가 부족한 교사들로 인해 학생들은 신앙교육은 물론 일반교육까지도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¹³⁾ 결국 조선대목구 선교사들은 하와이 이민에

11) 김정환, 「한말·일제강점기 뒤편 주교의 교육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56, 2011, 11-18쪽.

12) <ANNALES> JANVIER FÉVRIER 1906. — N° 49.

13) 하와이의 공립교육은 입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898년 미국에 병합된 하와이는 이른바 '미국화'(Americanization)의 일환으로 1896년부터 공립교육의 교수 언어로 영어를 사용토록 했다. 그러나 이민자 부모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모국어를 고수하였고, 이민 2세 가운데 배출된 교사들 역시 미국화의 의지나 영어 교육에 대한 적극성을 띠지 않았다. 미국의 입장에서 공립학교의 실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결과적으로

대한 홍보가 과장되었다고 결론 내리고 신자들의 하와이 이주를 반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자의 행렬은 멈추지 않았던 것 같다.¹⁴⁾ 신자들 역시 너무 가난했기 때문이다. 하와에 도착한 신자들로부터 전해진 정보도 조선대목구가 하와이 이민을 반대하는 이유가 되었다. 예상대로 이민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매우 열악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입교한 신자들의 상당수가 몰래 떠났습니다. 그중 일부는 하와이 제도에서 가톨릭 신부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종교적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물질적인 면에서도, 그들의 처지가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¹⁵⁾

1905년에 작성된 보고서에는 초기 하와이 한인 이민자들(1903~1905)의 신앙상황이 담겨있다. 우려한 대로 많은 이들이 종교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수의 섬으로 이루어진 하와이는 대규모 사탕수수 농장이 섬마다 분산 운영되고 있었다. 한국 이민들은 많게는 수백 명에서 적게는 몇 명씩 배속된 농장이나 공장 인근에 흩어져 생활하였다.¹⁶⁾ 1905년 하와

이민 신자 자녀들이 신앙을 상실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Michelle Morgan, *Americanizing the Teachers: Identity, Citizenship, and the Teaching Corps in Hawai'i, 1900-1941*, *Western Historical Quarterly* 45(Summer 2014), pp.150-152.

- 14) 개항 이후에도 봉건적 지배층의 수탈이 여전했고, 계속되는 자연재해와 전염병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면서 농민들은 경제적으로 더욱 궁핍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경제적 어려움의 타개를 위해 새로운 생활 터전을 찾으려는 민중이 하와이 이민선에 오르게 되었다: 최창희, 「한국인의 하와이 이민」, 195쪽.
- 15) néanmoins, un assez grand nombre de néophytes sont partis en cachette. Les uns, il est vrai, ont trouvé aux îles Hawai des missionnaires catholiques ; mais il en est d'autres qui vivent privés de tout secours religieux. Sous le rapport matériel, leur condition n'est guère enviable : 『ANNUEL』 1905; 『서울교구연보』II, 22쪽.
- 16) 1900년 하와이 제도의 총 인구는 154,001명이고, 하와이(빅아일랜드) 46,843명, 마우이 24,797명, 오후우 58,504명, 카우아이 20,562명이었다. 그리고 1901년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는 총 39,587명으로 집계되었다: Thrum, Thos G, *HAWAIIAN Almanac and annual for 1902*, HONOLULU, 1901, pp.38-39.

이를 찾은 윤치호는 5천여 명의 한인들에게 연설하기 위하여 오아후, 카우아이, 하와이(빅아일랜드), 마우이 등 4개의 섬을 두루 다니면서 32개의 농장과 공장을 방문한 바 있다.¹⁷⁾ 그가 바쁜 일정으로 노동자들이 배속된 농장과 숙소를 방문하는 데 25일이 걸렸다. 먼 거리와 교통수단의 불편으로 인해 이민자들은 서로 빈번히 교류하기가 어려웠다. 흩어져 생활하던 천주교 신자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신앙생활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¹⁸⁾

한인 천주교 신자들은 현지의 가톨릭교회를 찾아 고립된 현실을 스스로 극복해야 했다. 하지만 하와이의 천주교회도 한인 신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도움을 베풀 형편이 못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1905년의 하와이 전체 인구 대비 가톨릭 신자(어린이 포함)가 166,400명 : 12,000명으로, 7.2%에 불과하였다.¹⁹⁾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에 시달린 노동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 얻은 주일을 할애하여, 언어도 다른 현지 성당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로 인해 수계생활에서 떨어진 신자들의 현실이 고향의 가족에게 전달되었고, 하와이 이민에 대한 선교사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더욱 확고해져 갔다.

3) 첫 이민 신자들의 실체

유행처럼 번졌던 하와이 이민 행렬은 1905년 일단 중단되었다. 이민의 중단과 함께 신자들의 집단적 이주도 더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

17) 『국역 윤치호 영문 일기』 5, 1905년 10월 3일자.(<https://db.history.go.kr/>)

18) 이에 비하여 하와이 이민을 주도한 개신교는 한국에서 수십 명의 목사나 전도사가 이민자와 동행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현지로 들어갔다. 그들은 통역으로 농장주와 노동자의 소통을 돕거나 일정한 구역을 맡아 신자들을 돌보는 등 공동체를 조직적으로 관리 운영하였다: 안예리·신익철·조용희·서승희 역주, 『포와유람기와 근대 하와이 여행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23, 45쪽.

19) Schmitt, Robert C., Religious Statistics of Hawaii, 1825-1972, Hawaiian Journal of History, Vol.07, 1973, p.44.

의 입장 변화와 이민과 관련하여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일본의 압박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민 신자들의 열악한 상황이 가족들에게 전달되면서 이민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깨어진 면도 없지 않았다.²⁰⁾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미 하와이에 정착한 신자들 일부는 고국에서 향유하던 신앙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들은 한국천주교회와 하와이 교회를 연결시킨 첫 신자들이었다.

초기 한인 이민자가 생활하던 1905년 경, 하와이 대목구에는 다섯 개의 섬에 35개의 성당과 공소(mission)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오아후 16개, 하와이(빅아일랜드) 8개, 마우이 5개, 카우아이 4개, 몰로카이 2개가 분포되어 있었다.²¹⁾ 적어도 8개 이상은 포르투갈과 필리핀, 중국인 이민자 공동체를 위한 사목적 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인 신자를 위해 별도의 사목적 배려는 없었으나, 그들의 실체와 활동 정황이 몇 가지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1910년-1920년대 발간된 『경향잡지』에는 하와이 교민 신자들의 소식이 수록되어 있다.²²⁾ 이 가운데 우선 1917년 1월호에서 교민 신자들의 상황을 살펴보자.

20) 「Rapport des missions」 1906: 그 이후로 이러한 움직임은 다행히 중단되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이주민들은 꿈꾸던 나라를 찾지 못했고, 많은 이들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조국에 남아 있는 형제들에게 솔직한 고백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을 뒤따르려는 욕구가 자연스레 떨어졌습니다. 한편, 최근에 통과된 이민 관련 법률이 모집 조건을 더 어렵게 만들었고, 노동 착취자들은 사실상 그들의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21) Parish Histories : HI, UNIVERSITY OF NOTRE DAME Archives(<https://archives.nd.edu/PPHC-HI.HTM>) ; 1911년에 하와이 대목구는 가톨릭 인구가 35,000명으로 빠르게 증가했고, 85명의 사제, 30개의 성당, 55개의 공소, 아카데미 4개, 칼리지 1개, 본당 학교 9개를 보유하고 있었다(Sandwich Islands, Catholic Encyclopedia, Vol.13. pp.438-439)

22) 「하와이 교우 소식」, 『경향잡지』 365호, 1917.1.15., 5-8쪽; 「동정녀의 선생복중」, 370호, 1917.3.31., 125-126쪽; 「하와이 교우들의 자선심」, 461호, 1921.1.15., 10-15쪽; 「고아원에 기부」, 476호, 1921.8.31., 384쪽; 「하와이 교우의 편지와 기부」, 485호, 1922.1.15, 14-15쪽; 「고아원에 기부」, 509호, 1923.1.15., 15-16쪽; 「하와이 교우 고아원에 기부」, 532호, 1923.12.31., 562-563쪽; 「하와이 교우 제씨의 자선심」, 581호, 1926.1.31., 43쪽; 「하와이 조선인 교우 제씨 배신부를 환영」, 635호, 1928.4.15., 152-153쪽; 「하와이 우리 동포 교우 제씨의 항구한 자선심」, 700호, 1930.12.31., 561-562쪽; 「하와이 조선인 교우의 열심」, 727호, 1932.2.15., 59-60쪽; 「하와이 교우 제씨의 열심」, 752호, 1933.2.28., 85-86쪽.

조선에서 교우 행세하던 이는 한 삼사십 명 이상인 듯하나 그러나 그동안 동서남북 풍에 다 넘어져 자고, 아직 깨어있는 이는 하와이 여러 섬에 한 10 명에 지나지 못할 듯하고, 지금 호놀룰루에서 수계하는 이는 칠팔십 세 이상으로 남녀노소가 20인가량인데 남자 3인 부인 5인은 본국에서 온 교우요, 그 외는 다 여기서 입교영세·결진까지 한 교우들인데...²³⁾

인용문은 호놀룰루에 세거하는 이약한이 경향잡지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1916년에 작성한 것이다. 이약한은 한국에서 온 신자가 30-40명 이상이라고 추정했고, 입국 신자 가운데 수계자는 약 10명 정도로 불과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어 자신이 사는 호놀룰루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전했다. 약 20명의 신자가 수계하고 있으며, 고국에서부터 신자였던 8명을 제외하고 모두 하와이에서 입교 영세했다고 하였다. 초기 입국 이민자 가운데 한인 신자들이 다수 존재했고, 일부는 현지에서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그 실체를 추정할 수 있는 신자들 명단이 『경향잡지』의 경성 영해원 기부자에 일부 수록되어 있다.

〈표 1〉 1910-1920년대 『경향잡지』 수록 영해원의 하와이 기부자 명단, ()는 달러 금액.

1917년 3월호 :	임세성 바오로(5) 박민언 베드로(4) 이약한 요한(2) 김화경 시몬(2) 주인섭 바오로(1) 전 헬레나(1) 차완실 베드로(0.25)
1921년 1월호 :	익명씨(20) 김화경 시몬(5) 전 헬레나(1) 익명씨(5)
1921년 8월호 :	장경춘 가밀로(56)
1922년 8월호 :	이경호 베네딕도(10) 박만보 베드로(5) 이약원 안토니오(5) 이내문 바르나바(2) 김화경 시몬(1.25) 박문백 베네딕도(1) 김베로니카 노부인(1) 김마리아(이내문 처,1) 최마리아(박문백 처,1) 익명자(5)
1923년 1월호 :	조선 동포 교우들(69.2)
1923년 12월호 :	박만보 베드로(5) 이경호 베네딕도(4) 박마리아(3) 익명씨(150) 박문백 베네딕도(1) 김마리아(이내문 처,1) 백경순 부인(0.50)
1926년 1월호 :	전루시아 외(56.55)

23) 「하와이 교우 소식」, 『경향잡지』 365호, 1917.1.15., 5-7쪽.

1917년부터 1926년까지 『경향잡지』에 기부자로 수록된 하와이 신자는 중복된 이름과 익명 기부자를 제외하면 20명에 이른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절반은 초기(1903-1905년) 이민 입국자 명단에서 같은 이름이 확인된다.²⁴⁾ 두 자료에 같이 나타난 이름의 주인공이 동일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우선 신원이 확인된 인물로 1905년 5월 29일 차이나호로 하와이에 입국한 임세성 바오로가 있다. 입국자 목록에 거주지가 용소막으로 기록된 ‘Im, Sei Sung’은 24살의 기혼자로 동행한 가족은 없었다. 그런데 이약한의 편지에는 임세성이 원주 용소막 교우로 소개되었다.²⁵⁾ 강원도 용소막은 1905년에 성당이 설립되었을 만큼 오래된 신자 공동체가 존재했다. 이들 가족은 이미 용소막 신자로 수계하다가 하와이로 이주하였을 것이다.

1922년과 1923년 기부자 박만보 베드로는 1903년 10월 5일 입국자 명단에 30세 기혼으로 파주에서 온 ‘Pak Man Po’와 동일인이 아닐까 한다.

1917년 기부자 박민언 베드로는 1904년 4월 26일 40세의 입국자 ‘Pak Min Eun’으로 보인다. 아내 ‘Po In’과 아들 4명을 포함하여 일가족 6명이 ‘Pochi Kyung’이라는 곳에서 왔다.

같은 해 기부자 차완실 베드로는 서울에서 온 40세의 기혼자 ‘Cha Wan Sil’과 그의 37세 아내 ‘Yu, Don Kun’이 함께 입국하여 입국자 명단에 수록된 인물로 추정된다.

이내문 바르나바와 김마리아는 1922년과 1923년 기부 명단에 있다. 입국자 명단에도 ‘Ye Nai Moon’이 있는데, 남산에서 온 40세 기혼자로 되어 있다. 어머니와 여동생, 아들 3형제까지 모두 7명이 1904년 8월 22일에 입

24) Korean Passengers Arriving at Honolulu, 1903-1905.

25) 「하와이 교우 소식」, 『경향잡지』 365호, 1917.1.15., 6-7쪽; 「하와이 교우의 자선심」, 『경향잡지』 461호, 1921.1.15., 11쪽: 그의 모친 김마리아와 아내 신루시아는 1912년에 입도하여 2녀 1남을 출산하였고, 바나나 농사를 짓고 살았으나 1919년 전염병으로 아내와 자녀 2명을 잃었다.

도하였다.

1923년 기부자 박문백 베네딕도는 입국자 명단에서 보이는 35세 기혼자 'Pak Moon Paik'으로 추정된다. 교동 출신으로 1904년 9월 5일에 입국하였다.

1905년 5월 29일 입국자 명단에는 남천리(Nam Chun Li)에서 온 35세의 기혼자 'Chang, Kyeng Choon'이 수록되어 있다. 1921년 기부자 기사에서 장 가밀로에 대해 노동자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고 소개한 것으로 보아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1923년 기부자 백경순 부인은 남편과 함께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 입국자 명단 속 'Paik, Kyeng Soon'은 1905년 5월 29일 40세에 화일리에서 하와이로 왔다. 남동생과 25세의 아내 그리고 아들까지 일가족 4명이 함께 입도하였다.

세례대장과 묘비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 신자들도 있다. 세례대장에는 간단한 인적사항이 있으므로 수록된 명단과 입국자 명단을 대조하여 초기 입국 신자를 추정해 보았다.

카이무키(Kaimuki)의 성 패트릭 성당의 세례대장(1927-1934)에는 1929년 8월 31일 세례를 받은 Marry Kyung Yea Lim(임경애 마리아)가 있다. 그녀는 1905년 10월 2일생으로 카우아이(Kauai) 하나마울루(Hanamaulu)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임선일(Sun ill Lim)이고 어머니는 진수산나(Sujanna Chin)로 기록되어 있다. 입국자 명단에는 1903년 12월 5일 도릭호를 통해 김산(Kim San)에서 온 37세의 임선일(Im, Sun il)과 20세의 임선일의 아내가 올라 있다. 임선일과 진수산나는 초기 이민자로서 카우아이의 하나마울루 인근 농장에서 살며 딸 임경애를 출산했고, 이후 임경애는 24세에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의 어머니가 수산나라는 이름을 가진 것으로 보아 이미 신자였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이약한의 편지에 따르면 고국에서 신자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지속하

는 이가 1/3 혹은 1/4에 불과할 만큼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웠다.²⁶⁾ 특히 임경애가 태어난 카우아이 섬 지역은 1905년 당시 하와이 군도의 성당과 공소 35개 가운데 4곳 밖에 없는 지역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더욱 어려웠을 것이므로, 유아 세례를 받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날 48세의 나이로 세례를 받은 Julius Chung(정율리오)은 1881년 7월 17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입국자 명단에서 찾을 수 있는 인물은 1903년 10월 5일 시베리아호로 입국한 ‘Chung, Wha Young’(정화영)을 지목할 수 있다. 입국 당시 나이가 기혼의 23세로 출생일인 1881에 가깝고 서울이 최종 거주지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례대장과 입국자 명단에서 수록된 이름은 같은 인물이 아닐까 한다.

1931년 10월 4일생 Clara Kun Nai Kong은 1944년 5월 5일에 13세의 나이로 세례를 받았다. 그의 부모는 공성원과 차옥금이다. ‘Kong, Sung Won’은 입국자 명단에 1904년 2월 18일 도리호를 타고 온 23세의 기혼자로 수록되어 있다. 어린 공글라라에게 세례를 받도록 한 것으로 미루어 그와 아내가 신자였을 가능성이 높다.

빅아일랜드 성 베네딕도 성당(St. Benedict Catholic Church)의 묘원에는 한인으로 추정되는 묘가 다수 존재한다.²⁷⁾ 묘지 중앙에는 ‘HYUEN HONG LEE, JAN 30 1879/MAR 3 1936, 大韓 咸南 正平郡 周利面, 學生 李鉉 ○ 墓, 本 陽城 年 五十八 一九三十六 三月初三日 別世’라고 적힌 비석 1기가 있다.²⁸⁾ 간단한 인적사항과 생몰일을 표기한 것인데, 입국자 명단에는

26) 「하와이 교우 소식」, 『경향잡지』 365호, 1917.1.15., 5-7쪽.

27) 성당은 일명 페인트드 성당(The Painted Church)으로 불린다. 1842년 본당 설립 이후 1899년에 현재의 자리로 이전하였고, 성당은 1902년에 축성되었다. ‘History of the Painted Church’(https://thepaintedchrchhawaii.org); 2024년 10월 8일, 하와이 한인성당 이득규 바오로 신부의 도움으로 방문 조사하였다.

28) 하와이 소재 초기 한인 이민 묘비에 관해서는: 『미주한인 독립운동 관계 기사와 한인 묘비자료집』, 국가보훈부, 2023; 김주용, 「하와이 빅아일랜드 초기 한인 비석연구」, 『Homo Migrants』 23, 2020; 문경희, 「‘잊혀진’ 또는 ‘읽을 수 없는’ 기록 속의 여성들-빅아일랜드 한인 1세의 묘비와 삶의 궤적」, 『Homo Migrants』 23, 2020.

1905년 5월 8일 ‘Woo Pong Dong’에서 온 26세의 기혼자 ‘Ye, Hyen Hong’이 있다. 우봉동(牛峯洞)은 함경남도 정평군(定平郡) 주이면(朱伊面) 용강리(龍江理)를 칭하는 또 다른 이름이다.²⁹⁾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성당 묘지에 묻힌 것으로 보아 이현홍은 천주교 신자였을 가능성이 있다.

정리하자면 입국자 명단에 수록된 이민자 가운데 천주교 신자로 추정되거나 이후 신자가 된 것으로 보이는 인물은 다음과 같다.

〈표 2〉 초기 이민 천주교신자 추정 명단

	이름	입국나이	한국주소	입국일	비고
1	정화영요한	23(기혼)	서울	1903.10. 5	1929년 세례
2	박만보베드로	30(기혼)	파주	1903.10. 5	경향잡지와 입국자 명단 대조 추정
3	임선일	37(기혼)	김산	1903.12. 5	딸 임마리아 1905년 카우아이 출생
4	진수산나	24(처)			
5	공성원	23(기혼)	창원	1904. 2.18	1931년생 딸 공글라라, 처 차옥금
6	이경호베네딕도	26(기혼)/ 36(기혼)	평양/ TongNa	1904. 1. 9 1904.10. 6	입국자 명단에 이경호가 두 명임
7	박민언베드로	40(기혼)	Pochi Kyung	1904. 4.26	처와 4남 일가족 6인 입도
8	보인(Po In)	35(처)			
9	차완실베드로	40(기혼)	서울	1904. 6. 1	처와 함께 입도
10	유돈근	37(처)			
11	이내문바르나바	40(기혼)	남산	1904. 8.22	모, 여동생, 3삼 등 일가족 7인 입도
12	김마리아	35(처)			
13	박문백베네딕도	35(기혼)	교동	1904. 9. 5	경향잡지에 처 최마리아
14	이현홍	26(기혼)	우봉동	1905. 5. 8	빅아일랜드 성 베네딕도 성당 묘지
15	장경춘가밀로	35(기혼)	남천리	1905. 5.29	노동자
16	임세성바로로	24(기혼)	용소막	1905. 5.29	모 김마리아와 처 신루시아 1912입도, 2녀1남 출산
17	백경순 부인	25(처)	화일리	1905. 5.29	남편 시동생, 아들, 일가족 4인 입도

그밖에도 첫 이민자들 속에 다수의 신자들이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되

29) 이근열, 「1917년 함경남도 정평군(定平郡) 《지지조서(地誌調書)》 편철 문서 지명 연구」, 『한국지명학회』 37, 2022, 154쪽.

지만 자료의 한계로 밝히지 못했다. 아울러 박민연, 이내문, 백경순 등은 일 가족이 4명-7명까지 함께 입국하였으므로 초기 이민자 가운데 신자였거나 신자가 된 사람은 번호를 붙인 17명 외에도 가족 13명이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3. 한인 천주교 신자들의 활동

뤼텔 주교의 보고대로 초기 이민 신자들 가운데 일부가 가톨릭 신부를 찾아갔다. 언어의 한계 때문에 현지 사제들로부터 충분한 사목적 배려를 받지는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공동체 활동은 자발적이고 자체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인데, 그 정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고국 교회와의 연계 활동

박해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한인 신자들은 순교자의 후손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민 신자들은 모범적인 신앙 활동으로 고국에서 체득한 신앙을 살아갈 것을 서로 독려했다.³⁰⁾ 특히 애덕의 실천은 고국에 서부터 배워온 교리서의 핵심적인 덕목이었다.³¹⁾

<표1>에 보이는 바와 같이 하와이 신자들은 고국의 고아원에 해마다

30) 「하와이 교우 소식」, 『경향잡지』 365호, 1917.1.15., 7쪽.

31) 재물이 있어도 또한 예수 영해의 가난하심을 본받을 법이 있느니 본받으려 할진대 마땅히 그 재물의 임자 됨으로 알지말고 남의 것과 같은 것으로 보고 가벼이 여겨 마음을 아주 불이지 말것시오, 또 마땅히 선공을 위하여 많이 쓰며 가난한 이를 힘대로 구제할지니라. 여러 성인이 예수를 빨리 따르려 하여 제 재물을 온전히 버렸고 혹 온전히 버리지 아닌 이 있어도 가벼이 여기고 해가 있을까 염려하여 항상 원수와 같이 보았는지라. 우리는 저와 같이 못하거든 적어도 이와 같이 할지니 이러하면 바야흐로 예수의 가난하심을 본받고 영혼을 구하는 길에 달리리라.(A. 다블뤼, 『신명초행(神命初行)』, 예수성탄 - 종사)

기부금을 전달했다. 버려진 아이들에 대한 구제 활동은 한국천주교회의 대표적인 애금 활동이었다. 1854년 메스트르 신부가 시작한 영해회가 대표적이다.³²⁾ 박해기 영해회는 고아나 부양 능력이 없는 가정의 아이들을 신자 가정에서 양육하게 했다. 박해 이후에는 영해원과 같이 조직적인 형태로 자리를 잡았다. 블랑 주교에 의해 1880년 설립된 영해원은 1888년 진출한 샬트르 성바로 수녀회에 맡겨 운영되고 있었다.

금년 성탄절을 당하여보매, 각국 교우들은 몇 십원 몇 백원씩 내어 환난 당한 이를 구제하기로 열심을 분발하되, 우리 조선 교우는 다 빈한하여 그런 선공에 참여하지 못하기로 원통하기 한이 없어, 내가 먼저 말하기를 우리는 저런 선공에 참례하지 못하니 다만 몇 푼씩 거두어 우리나라 경성 영해원에 보내어 불쌍한 영해들에게 밥 한 술갈이라도 먹여보자 하매, 몇 교우가 몇 원씩 낸 것을 다 수합하니 미국돈 15원 25전이라, 이것을 경성 영해원으로 보내고 그 보조한 교우들의 성 본명을 기록하여 보내나이다. 그러나 이는 이 같이 미소한 것을 자랑함도 아니오 또한 그 보조한 교우들로 하여금 헛된 영광을 취하여 그 공로를 잃게 함도 아니외다.³³⁾

한인들의 기부 동기는 하와이에서 생활하는 각국 신자들의 애덕 실천에서 받은 자극이 있었지만 독특한 점이 드러난다.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곳을 생각할 때 우선적으로 떠올린 것이 경성의 영해원이었기 때문이다. 애덕 선공을 쌓는 일에 고향의 가난한 현실에 대한 기억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리고 가난한 고국에서 더욱 가난한 고아들을 도우면서, 자랑하거나 헛된 영광에 취해 공로를 잃지 않으려는 신자들의 겸양은 한국천주교회가

32) 노길명, 「박해기·개화기의 한국 천주교회와 사회개발」, 『한국천주교회 창설 200주년 기념 한국교회사 논문집 I』, 1984, 168쪽; 박문수, 「가톨릭 사회복지와 한국의 근대화」, 『한국 근·현대 100 속의 가톨릭교회』 상, 가톨릭출판사, 2003, 335쪽.

33) 「하와이 교우 소식」, 『경향잡지』 365호, 1917.1.15., 6쪽.

애덕에 대해 일관되게 가져온 태도였다. 하와이 신자들은 고국에서 익힌 신앙적 태도를 고수하고, 고국의 가난한 현실을 잊지 않으려 했다. 이를 통해 소원했던 신앙의 회복과 조선교회와의 연대를 이어가고 있었다.

모금 과정에서 드러난 공동체의 존재 정황도 주목된다. 1916에 이약한 이 주도한 모금에 7명이 참여하였고,³⁴⁾ 1920년 임바오로가 주도한 기부에서도 모금에 참여한 사람은 익명씨 2인과 자신을 포함하여 5명이었다.³⁵⁾ 1921년 8월호에 별도로 큰 금액을 기부한 장가밀로 역시 기부를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사전에 다른 신자들과 공유하고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 밖에도 1922년에 10명, 1923년 7명 외에도 명단은 없으나 공동체 단위의 기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2) 공동체 신앙 활동

하와이 대목구의 세례대장에는 한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관한 기록이 다수 존재한다.³⁶⁾ <표3>은 한인으로 추정되는 세례자의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³⁷⁾

기간은 메리놀 선교회의 사제들이 한인천주교 공동체를 맡기 이전인 1920년대 말까지이다. 이 기간의 입교 현황은 한국어를 구사하는 사제의 도움을 받지 못한 가운데 자발적으로 조직된 공동체 활동의 정황이라고 할 수 있다. 주교좌인 평화의 모후(Cathedral Basilica of Our Lady of Peace) 성

34) 「하와이 교우 소식」, 『경향잡지』 365호, 1917.1.15., 5쪽.

35) 「하와이 교우의 자선심」, 『경향잡지』 461호, 1921.1.15., 14-15쪽.

36) 호놀룰루 교구에 소장된 세례대장과 혼인대장 가운데, 하와이 한인천주교회 50주년사편찬위원들이 찾아낸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하였다. 호놀룰루 교구와 편찬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37) 세례명만으로 한인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 모든 대장을 확인할 수도 없었다. 앞으로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다만 신자 공동체의 실체와 활동의 정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표 3〉 1919-1929 St Michael, St Patric, Cathedral 의 한인 세례자

	이름	출생일(장소)	세례일	성당	부모
1	Annie Park	1911.5.16	1919.6.8	St Michael Waialua	Young Choo Park /Elijabeth Liu
2	Johnnie Park	1913.10.20			
3	Joseph Park	1915.4.10			
4	Peter Park	1917.7.1			
5	Fred nelson Park	1923.8.20(Waialua)	1925.11.10	St Michael Waialua	
6	Rose Park	1925.9.29(Waialua)			
7	Margarette Park	1922.3.7(Kona)	1922.5.19	Cathedral	K.Gabriel Park/** Marry
8	Agnes Lee	1925.10.16(Waialua)	1925.11.11	St Michael Waialua	Joseph ** chun Lee/ Theresa Lee
9	Joseph Lee Myung Suk	1880.5.17	1925.12.25	Cathedral	Lee Kyung Shi / Juoannah Chai
10	Paul Chung	1913.9.12(Honolulu)	1926.5.22		Chung Kee Woon / Chung Hee Son
11	Peter Chung			Cathedral	1925-1927세례대장
12	Julius Lee	1925.12.31(Kaumuki)	1928.10.26	St Patric Kaimuki	Bong Sool Lee /Lucy Kim
13	Lilian Lee	1928.8.6(Kaumuki)			
14	John Chung	1881.7.17(Seoul)	1929.8.31	St Patric Kaimuki	Chung nay Oho /Nun Choo Kim
15	Mary Kyung yea Lim	1905.10.2. (Hanamaulu Kauai)			Sun Ill Lim /Sujanna Chin

당을 비롯하여 와이알루아의 성 미카엘(St. Michael) 성당 그리고 카우무키의 성 패트릭(St. Patric) 성당 등 3개의 성당에서 14명의 세례자가 확인되었다. 연령별 특징을 보면 마지막 두 사람을 제외하면 생후 1개월 미만의 신생아에서 13세까지의 어린이 세례자가 대부분이었다. 어린이 세례자가 많다는 사실은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독신자가 많았던 이민 초기에 비해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었다고 여겨진다.

박영주(Park Young Choo)와 류 엘리사벳의 자녀 6명은 1919년 4명과 1925년 2명이 같은 날 세례를 받았고, 다른 가정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 세례자가 있었다. 또 1929년 8월 31일, 같은 장소에서 성인 세례를 받은 정

요한과 임마리아의 사례도 한인 신자 공동체 활동의 결과로 짐작된다. 성인 세례의 경우 일정한 기간 예비자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하와이에서 입교 영세하거나 견진성사까지 받은 신자들이 많았다는 이약한의 편지도 이를 뒷받침 한다. 이약한은 6-7명의 한인이 자신의 집에 자주 내왕하며 도리를 문답하고, 성사 받은 새 신자의 대부까지 섰다.³⁸⁾ 임세성의 편지에도 기부자의 가정 중에 한집안 식구가 세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다.³⁹⁾ 천주교 신앙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인 성사에서 공동체의 역할이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언어의 한계는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었다. 고해성사의 경우 사제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했기 때문이다. 신자들은 이를 극복하고자 조선에서 가져온 『성찰기략』으로 죄를 성찰하고 고해를 하는데 도움을 받았다. 구체적인 신앙생활로는 주일 파공과 대소재를 지키고 그밖의 정해진 규정들을 성실히 따르는 것으로, 고국에서의 신앙생활을 하와이에서도 이어가고자 했다.⁴⁰⁾

고국 신앙생활을 잇고자 했던 또다른 사례는 장례절차이다. 1917년 1월 27일 이약한의 딸 마리아가 21세의 나이에 선종하자, 그곳의 조선 교우들이 다 모여 열심히 ‘연도’를 바쳤다.⁴¹⁾ 하와이에서 행해진 ‘조선 교우들의 연도’는 한국에서 하던 방식대로 우리의 가락으로 부르던 연도가 아닐까 생각된다.

새 입교자와 세례자들이 생겨나고 공동체가 더욱 견고해질 수 있었던 데에는 하와이 자체의 교세 변화도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1905년 하와이 전체 인구의 7.2%에 불과하던 교세는 가파르게 성장하여, 1911년에는 가톨릭 인구가 35,000명으로 증가하였고, 1926년에는 전체 인구

38) 「하와이 교우 소식」, 『경향잡지』 365호, 1917.1.15., 5쪽.

39) 「하와이 교우의 자선심」, 『경향잡지』 461호, 1921.1.15., 14쪽.

40) 「하와이 교우 소식」, 『경향잡지』 365호, 1917.1.15., 7쪽.

41) 「동정녀의 선생복종」, 『경향잡지』 370호, 1917.3.31., 125쪽.

328,444명 중 105,922명으로 가톨릭 신자가 무려 32%를 상회하고 있었다.⁴²⁾ 35개에 불과하던 성당과 공소도 113개로 늘어났다. 때마침 전체 인구와 신자수에서 아시아인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하와이 대목구는 아시아 가톨릭인의 성장에도 주목하는 한편 이민자를 복음화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해 갔다. 교회에서 새로 설립한 학교에서 교리교육을 정례화시키는 것은 물론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빈민 학생이나 종교 교육을 받지 못한 공립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평신도 봉사자 교리교사를 활용한 교리교육에 나섰다.⁴³⁾ 그 결과 일본과 한국 등 다수의 아시아 이민 학생들이 세례를 받고 그 부모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1926년 보고에 따르면 51명의 일본인과 3명의 한인이 세례를 받았다. 다양한 노력들에 힘입어 이 시기에 파악된 한인천주교 신자 수는 100명에 이르고 있었다.⁴⁴⁾

3) 한국 천주교회의 관심

한인 천주교 신자들의 활동에는 고국의 교회와 긴밀한 연대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들은 고국 교회에 대한 소식을 궁금해하였고,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민감하게 주시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였다. 이 때 지속적으로 구독되었던 『경향잡지』는 하와이의 한인 신자들과 한국교회를 연결시키는 매개체로 작용하였다. 1906년에 『보감』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간행된 잡지는 이미 하와이를 비롯하여 일본과 샌프란치스코 지역까

42) 1910년대 인구 조사에 따르면 하와이안을 제외하고, 포르투갈 이민자가 약 2만2천이고, 중국이 2만1, 일본인이 약 7만 9천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926년에 이르면 포르투갈 2만7천 명에 필리핀인이 4만 8천명으로 가장 많은 이민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인과 일본인은 각각 천 200명과 600명으로 줄어들었다. 신자수의 변화는 다수 이민국 이민자의 종교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Yzendoorn, Fr.Reginald, History of the Catholic mission in the Hawaiian Island, Honolulu : Honolulu Star-Bulletin, 1927, p.244.

43) History of the Catholic mission in the Hawaiian Island, p.239.

44) History of the Catholic mission in the Hawaiian Island, p.239.

지 전해져 한인들 사이에서 읽히고 있었다.⁴⁵⁾ 1916년경 하와이에는 10여 명의 한인들이 잡지를 구독하고 있었다.⁴⁶⁾ 영어가 익숙하지 않았을 초기 이민 신자들에게 우리말로 된 교회 잡지의 지속적인 유통과 정보 공유는 성직자의 도움이 제한된 가운데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잡지를 통해 가톨릭 교리와 한국천주교회의 공식적인 문헌 그리고 고국 교회들에 대한 최신 소식들을 접하며 자신들의 신앙을 재확인하고 고국 교회와 교감하였다. 조선에서 활용하던 『성찰기략』이나 기도를 위해 필요한 서적들과 한국적 신앙생활 방식도 고국 교회와의 연대를 지속하려는 노력이었다.

한편 하와이 한인 신자들의 자발적 신앙생활과 한국천주교회와의 연대에 대한 노력은 1923년에 이르러 일정한 성과를 이루었다. 경성대목구장 뫼텔 주교가 한국인 이민 신자들을 위해 경리부장 라리보(Adrien-Joseph Larribeau) 신부를 하와이에 방문하도록 파견한 것이다.⁴⁷⁾ 한국천주교회가 하와이에 사제를 파견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한 결과였다. 초기 이민에 대해 반대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던 한국천주교회가 하와이 신자 공동체를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방문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천주교회의 인식 변화는 하와이 지역의 사정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초기 이민의 상당수는 고향으로 되돌아 왔고, 나머지 대다수는 미국 본토로 이주하거나 하와이에서도 여러 직역에 종사하면서 자리를 잡아갔다. 더구나 초창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와이 내 가톨릭의 교세가 높아진 상태였으므로 신앙생활의 고립을 우려할 필요도 없어졌다. 경향잡지사의 사장을 겸하고 있던 라리보 신부는 하와이 현지의 이러한 상황과 신자들의 활동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⁴⁸⁾ 뫼텔 주교는 자신이 파견한 라리보 신부의

45) 『Annales』 N° 63, 1908.

46) 「하와이 교우 소식」, 『경향잡지』 365호, 1917.1.15., 5쪽.

47) 그의 주교는 그를 하와이 제도로 보내 그곳으로 이주한 수많은 한국인 신자들의 그리스도인 새황을 조직하도록 했습니다 : APF, N.S., Vol. 2061(1956), rubr. 36-3, prot. 447/58, f. 264v.

48) 『경향잡지』의 '회보'에는 '경성교구의 당가 겸 경향잡지 사장 아드리야노 원신부는 성회 범

결국 라리보 신부는 하와이 방문과 미국 방문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긴 여행을 떠났다. 1923년 10월 7일 대구를 떠난 라리보 신부는 부산에서 출발하여 일본을 거쳐 하와이로 갔다. 본래 호놀룰루에서 2주간 머물며 한국인 신자들에게 성사를 줄 예정이었으나,⁵³⁾ 일본에서 의 출항이 연기되어, 결국 하와이에 머문 시간은 3일에 지나지 않았다. 라리보 신부가 하와이에서 만난 신자들의 규모와 구체적인 활동은 알 수 없으나, 한인 이민자 신앙공동체를 재정비하여 조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라리보 신부의 방문은 한국천주교회의 하와이 한인 신자공동체에 대한 첫 공식방문이었고,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한편 하와이 천주교회에는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었다. 1926년 5월 13일 부이념스(Libert H. Boeynaems) 주교의 선종으로 알렌카스트레(Stephen Alencastre) 주교가 새 대목구장을 승계했다. 알렌카스트레 주교는 1927년 2월 4일 공식적으로 성심성당(Sacred Heart Parish)을 메리놀 사제들에게 위임하고, 같은 회 소속 크레스(William S. Kress) 신부를 주임사제로 임명하였다.⁵⁴⁾ 알렌카스트레 주교는 중국인 이외에도 수천 명이 넘는 아시아인들을 영적으로 돌봐줄 사목적 시스템이 필요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포교성성과 메리놀회와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었다.⁵⁵⁾ 메리놀회는 성심성당에 본당신부를 파견하는 한편 사제관을 신축하고, 이곳을 하와이 지부로 삼았다. 메리놀회의 성심성당 수임은 한인 신자들에게도 의미가 있었다. 메리놀회는 1923년부터 한국에 진출해 있었기 때문이다. 1928년 2월 한국에서 활동 중이던 포스피칼(Hubert M. Pospichal) 신부가 요양차 하와이에 왔다가 한국 신자들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53) 『드망즈주교일기』 1923년 10월 7일자.

54) REV. LAURENCE, S. VAUGHAN, A CHRONICLE OF THE MARYKNOLL FATHERS AND BROTHERS IN HAWAII, Maryknoll, New York, p.10.

55) The Field Afar, Vol. 21, N. 2, 1927년 2월호, p.45.

이다.⁵⁶⁾ 한국 신자들은 모국어로 대화를 나누며, 고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향수를 달렸고, 신앙의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이들에 한 번씩 포스피칼 신부를 방문하였다.⁵⁷⁾ 신자들은 포스피칼 신부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배속되기를 바랐지만, 그는 병의 회복과 함께 불과 몇 달 뒤인 9월 6일 한국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호놀룰루를 떠났다.⁵⁸⁾ 라리보 신부의 파견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 하와이 한인 공동체와 한국천주교회 간의 연결은 메리놀회를 통해 보다 구체화 될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다.

4. 맺음말

1903년 최초의 공식 이민이 시작된 이래, 초기 하와이 이민자들 가운데 천주교 신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의 존재가 거의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제한된 자료에서나마 초기 이민 신자들의 실체와 그들의 활동 정황을 일부 살펴볼 수 있었다. 『경향잡지』, 서울교구연보, 하와이 지역의 세례대장에서 언급된 이름과 기존에 밝혀진 이민자 명단을 대조하여 초기 입국자 가운데 17명~20여 명의 인물을 잠정 지목하였다. 이미 신자로서 입국하였거나 나중에 본인이나 가족이 입교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극빈한 처지와 언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지의 가톨릭 성직자를 찾아가 신앙생활을 이어가려고 노력하였다. 이들의 활동을 요약하면 첫째, 한국천주교회에서 발행한 경향잡지를 정기적으로 구독하며 천주교 교리와 공지 사항을 숙지했고, 고국 교회의 소식을 수시로 접하여 연대하고자 했다. 둘째, 경성의 영해원에 매년 단체로 기부금을 보내며 애금을 실천하였고, 교

56) A CHRONICLE OF THE MARYKNOLL FATHERS AND BROTHERS IN HAWAII, p.13.

57) The Field Afar, Vol.22, N.7, 1928년 7-8월호, p.215.

58) 「1928년 9월 5일 원장신부가 크레스 신부에게 보낸 편지」.

리를 공부와 전교를 실행한 결과 새로운 입교자를 배출하기도 하였다. 셋째 고해준비와 주일 파공, 대소재의 준수 등 고국에서 행하던 신앙생활을 서로 독려하였으며, 특히 장례 때에는 조선 신자들이 모여 연도를 바쳤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한국천주교회에서는 이민 이래 처음으로 1923년 라리보 신부를 파견하여 한인 신자들을 위로하고 공동체 조직에 힘을 실어 주었다. 하와이 첫 한인 신자들의 이러한 노력과 일련의 결과들은 초기 한국천주교회에서 보이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조직된 교회에서 독창적인 신앙공동체를 형성했던 초기 교회에 비길 수 있으며, 한국천주교회를 하와이 지역에 알린 처음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투고일 : 2024. 11. 3. 심사 시작일 : 2024. 12. 2. 심사 완료일 : 2025. 1. 6.

참고 문헌

『국역 윤치호 영문 일기』 5(<https://db.history.go.kr/>)

안예리·신익철·조용희·서승희 역주, 『포와유람기와 근대 하와이 여행기』, 한국학중앙연구원, 2023.

『함경도 선교사 서한집』I, 함경도천주교회사간행사업회, 1995.

THIRTEENTH CENSUS OF THE UNITED STATES TAKEN IN THE YEAR 1910 – STATISTICS FOR HAWAII,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13.

APF, N.S., vol. 2061(1956), rubr. 36-3, prot. 447/58, f. 264v.

『경향잡지』 365호(1917.1.15.), 370호(1917.3.31.), 461호(1921.1.15.), 476호(1921.8.31.), 485호(1922.1.15.), 509호(1923.1.15.), 527호(1923.10.15.), 532호(1923.12.31.), 581호(1926.1.31.), 635호(1928.4.15.), 700호(1930.12.31.).

『ANNUEL』 1905; 1906(N°49); 1908(N°63).

『Rapport des missions』 1906

『서울교구연보』II 『뫼텔주교일기』 『드망즈주교일기』

『교회와 역사』 441(2012.2)

『The Field Afar』, Vol.21, N.2.; Vol.22, N.7.

김정환, 「한말·일제강점기 뫼텔 주교의 교육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56, 2011.

이덕희, 「하와이 한인감리교회의 초기 교인들」, 『한국기독교와 역사』 19, 2003.

- 이덕희, 「하와이의 한인 성공회 교회」, 『한국기독교와 역사』 38, 2013.
- 이만열, 「하와이 이민과 한국교회」, 『한국기독교와 역사』 9, 2002.
- 이민석, 「일제의 종교정책과 메리놀 외방전교회의 한국 진출」, 『교회사연구』 64, 2024.
- 조은정·송병진, 「20세기 초 하와이 한국인 이민의 요인과 이민자의 특성」, 『경제사학』 51, 2011.
- 최창희, 「한국인의 하와이 이민」, 『국사관논총』 9, 1989.
- 홍윤정, 「하와이 이민과 이민단의 구성(1903-1905)」, 『역사학논총』 5, 2004.

‘History of the Painted Church’(<https://thepaintedchrchhawaii.org>)
Sandwich Islands, Catholic Encyclopedia, Vol.13.(<https://en.wikisource.org/>)
Parish Histories : HI, UNIVERSITY OF NOTRE DAME Archives
(<https://archives.nd.edu/PPHC-HI.HTM>)

- Thrum, Thos G, *HAWAIIAN Almanac and annual for 1902*, HONOLULU, 1901.
- Yzendoorn, Fr.Reginald, *History of the Catholic mission in the Hawaiian Island*, Honolulu : Honolulu Star-Bulletin, 1927.
- REV. LAURENCE, S. VAUGHAN, *A CHRONICLE OF THE MARYKNOLL FATHERS AND BROTHERS IN HAWAII*, Maryknoll, New York, 1990.
- Schmitt, Robert C., *Religious Statistics of Hawaii, 1825-1972*, Hawaiian Journal of History, Vol.07, 1973.
- Duk Hee Lee, *Korean Passengers Arriving at Honolulu, 1903-1905*, University of Hawaii, 2004.
- Michelle Morgan, *Americanizing the Teachers: Identity, Citizenship, and the Teaching Corps in Hawaii, 1900-1941*, *Western Historical Quarterly* 45, 2014.

ABSTRACT

The Presence and Activities of Korean Catholics in Hawaii in the Early 20C

Kim, Sung-Tae

Naepo Church History Research Institute

This study seeks to clarify the presence and activities of early Catholic immigrants in Hawaii. By cross-referencing names mentioned in Gyeonghyang Magazine, the Seoul Diocese Yearbook, and baptismal registers in Hawaii with previously identified immigrant lists, we have tentatively identified individuals among the early arrivals associated with the Catholic Church. Despite poverty and language barriers, these individuals sought to maintain their faith by reaching out to local Catholic clergy. Their activiti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y regularly subscribed to Gyeonghyang Magazine, published by the Korean Catholic Church, to learn about Catholic doctrine and announcements, as well as to keep up with news from their homeland church, fostering solidarity. Second, they practiced charity by sending annual group donations to Yeonghaewon in Gyeongseong, and through their studies of Catholic doctrine and evangelization efforts, they brought new converts to the faith. Third, they encouraged each other in faith practices from their homeland, such as preparing for confession, observing Sunday rest, and following the major fasts. During funerals, Korean believers gathered to pray for the deceased. As a result of these efforts, in 1923, the Gyeongseong Vicariate sent Father

Laribo to visit the Hawaiian community—the first visit of a priest since the immigrants' arrival. These achievements by Korean Catholics in Hawaii represent the first instance of introducing Korean Catholicism to the region.

Key words:

Korean Catholic Immigration in Hawaii, Fr. Larribeau,

Korean Catholic Diaspora in Hawaii